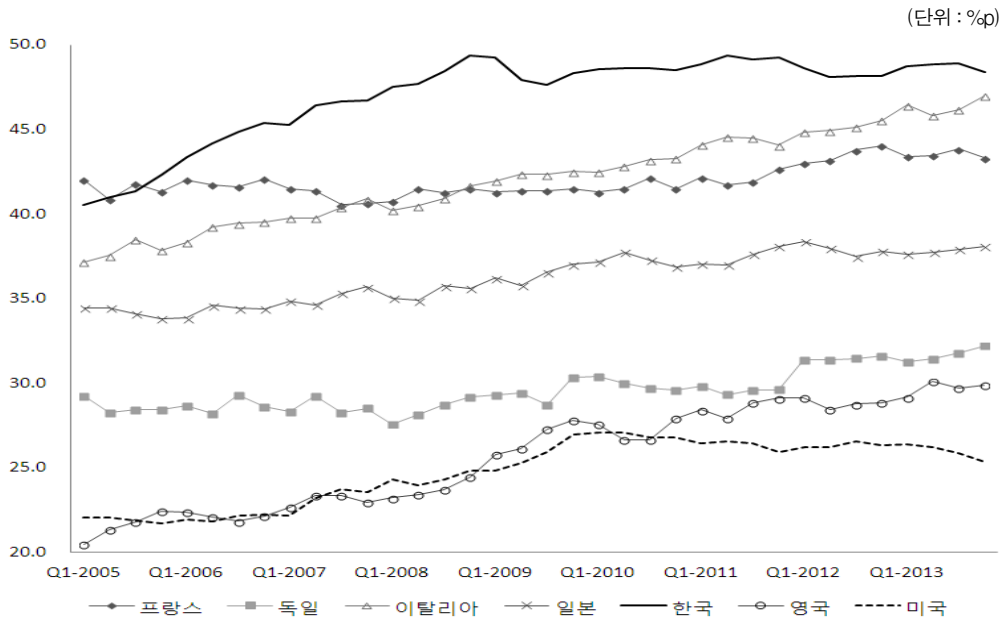


## 주요국 청년의 상대적 고용성과 변화

- 2000년대 들어 25세 미만 청년층과 25세 이상 연령층 간 고용성과 격차의 이슈가 대두되었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함.
  - 경기가 악화되면 고용사정도 전반적으로 악화되지만 연령계층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인구구조 변화 등 경기 외적이고 보다 장기적 요인에 의한 변화도 일어날 수 있음.
  - 2005년 1/4분기<sup>1)</sup> ~ 2013년 4/4분기 각국의 연령별 고용률 자료를 통해 국가간 격차의 크기와 국가내 격차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의 상대적 상황을 살펴봄.

[그림 1] 국가별 고용률 격차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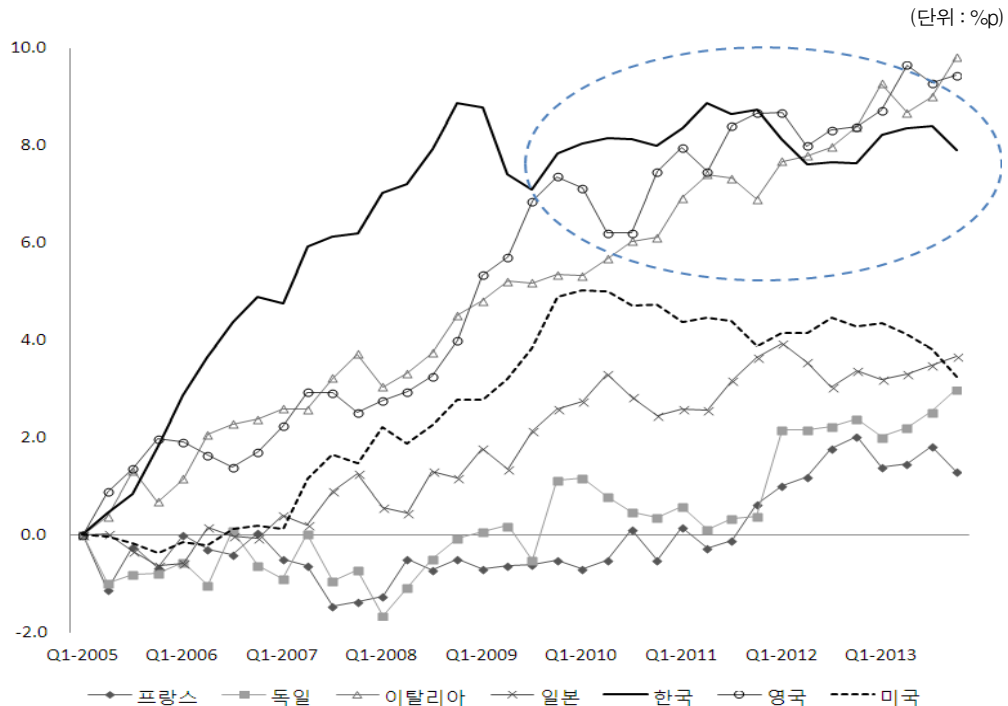


주: 고용률 격차%p=(25~64세 고용률)-(15~24세 고용률)  
자료: OECD, 계절조정.

1) 자료출처인 stat.oecd.org에서 비교대상국들의 연령별 데이터가 수록된 가장 이른 시점이 2005년 1/4분기임.

- 청년·비청년 간 고용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로는 한국(평균 47%p), 프랑스(평균 42%p), 이탈리아(41%p)가 있고, 격차가 작은 국가로는 영국(25.7%p)과 미국(24.7%p)이 대표적이었음. 그러나 최근 영국은 30%p대까지 확대됨(그림 1 참조).
  - 연령집단 간 고용률 격차는 제도·문화·산업구성 등 구조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청년층과 25세 이상 간의 고용률 격차는 국가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.
  - [그림 1]을 보면 2005년 1/4분기에 비해 전 국가의 고용률 격차가 벌어졌고 다만 국가간 정도의 차이만 나타남.
- 국가간 격차수준 차이를 무시하고 각국내 변화만을 나타낸 [그림 2]를 보면, 2005년 1/4분기 수준에 비해 청년·비청년 간 고용률 격차가 줄어든 국가는 없으나 국가별로 양상이 다름.
- 한국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고용률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격차가 48%p대에서 안정되는 등 타국과 상이한 양상을 보임.

[그림 2] 고용률 격차의 국가내 변화(2005년 4/4분기=0%p)



주: 고용률 격차%p=(25~64세 고용률)-(15~24세 고용률)  
 자료: OECD, 계절조정.

-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전반기 27.1%p까지 격차가 확대되었다가 지속적으로 다소 좁혀지긴 했지만,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음.
  - 영국, 이탈리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부터 이미 고용률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추가적인 격차 확대가 지속됨.
  -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금융위기 후반인 2009년 말까지 연령간 고용률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으나, 최근 2년 들어 격차가 다소 벌어지기 시작함.
- 이러한 각국의 현상에 대해 전반적 경제·고용사정 등 어떠한 일률적 설명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상세한 분석이 필요함.
- 고용률 격차의 변화는 각 연령집단별 고용성과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변화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·고용사정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, 그 민감성의 정도 또한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. **KLI**

(배기준,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